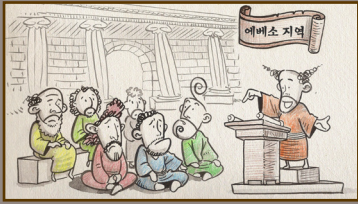


주님의 말씀이 힘차게 뻗어나갔어요!



나레이션 어느 날 바울목사님 일행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또 묻고 답하면서 잘 가르쳐주었습니다.

바울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나라입니다.

청중1 아니아니 저 선상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거야??

청중2 난들 알아? 말이 너무 어려워서 당체 못 알아들겠어~

청중3 에~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없다잖아~ ... 아닌가?

나레이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했습니다.

유대인1 싫어싫어~ 안~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뭘 노무 하나님 나라?

유대인2 저저 바울이라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하지 현실성이라고는 전~혀 없잖습니까?

바울 으!!!!...도저히 이렇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어...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질 않으니...

나레이션 그래서 바울목사님은 더 이상 회당으로는 나가지 않고, 대신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곳에 학원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토론하며, 열심히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바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론자1 아.. 유..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했죠?

바울 네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나레이션 이렇게 바울목사님 일행은 무려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레이션 그런데, 바울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심지어 바울목사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령들이 쫓겨나갔습니다.

환자1 내가 내가!!!! 드디어!!

사람들 (웅성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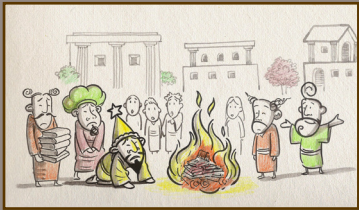
나레이션 이런 기적들을 보고 놀란 유대인 가운데는 스게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스게와의아들1 와우~ 어메이징!!!! 바울과 예수의 이름만 넣으면 뭐든 되는구만~~!

스게와의아들2 히히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스게와의아들3 야! 이거 대박!! 장사 잘 되겠는데? ㅎㅎㅎ..





나레이션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은 바울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 보려고 귀신들린 사람에게 갔습니다.

스게와의아들들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귀신들린사람

어.....아.... 밥줘..... 밥... 바바밥...

스게와의아들들

어?... 이상하다.. 바울이랑 예수 이름 다 넣었는데... 왜 이러지?... 안되겠다, 한 명 더 넣자. 내가 바울이랑 베드로랑 야고보랑 어..어.. 등등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말 들어라!!

귀신들린사람

아.... 밥달라니까.... 으으으으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이것들이 감히 귀신한테 사기를 쳐!

귀신들린사람

네 이놈들! 혼 좀 나와라! 으!!!! 슈퍼!! 바운스!!! 점프!!!!

스게와의아들들

아이고 사람 살려! 귀신이 사람잡네! 으악!

스게와의아들들

애들아 안되겠다. 튀자 튀어!!

사람들

(웅성거림) 야, 야. 저거 봐! 예수 이름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 예수와 바울이라는 사람 보통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나레이션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바울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목사님 일행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수록 많은 신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된 일들을 숨김없이 자백하면서 다 회개하였습니다.

죄인1

하이고 그 도둑놈이 바로 접니다. 제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2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 돈을 떼먹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레이션

또 마술쟁이들은 바울목사님 앞에 주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마술쟁이들

(않는소리) 저희가 그 간에 사기를 좀 쳤어요.. 이것들 다 태우면 용서해주는 거 맞죠? 제발요.... 야 뭐하냐? 빨리 빨리 안가져오냐?

나레이션

그 책은 은화로 오만, 요즘으로 치면 수억 원이나 되는 비싼 책들이었습니다.

사람들1

이야... 잘~타네!!!

사람들2

야야.. 저.. 집에 고구마 남는 거 있냐? 그것 좀 가지고 와 봐라.

나레이션

이렇게 에베소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힘있게 퍼져 나갔고, 그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